



# MERITZ

## 유통/화장품 Weekly

### 화장품 내수 부진 심화, 그 원인은?

1. 금주의 이슈
2. 전주 동향
3. 금주 전망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5. 주요 뉴스
6. 주요종목 Valuation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10. 주간/월간 수익률
11. 주가 추이
12. 업종별 지수 추이
13. 소비 주요지표
14. 중국 소매판매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16.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17. 면세점 동향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 1. 금주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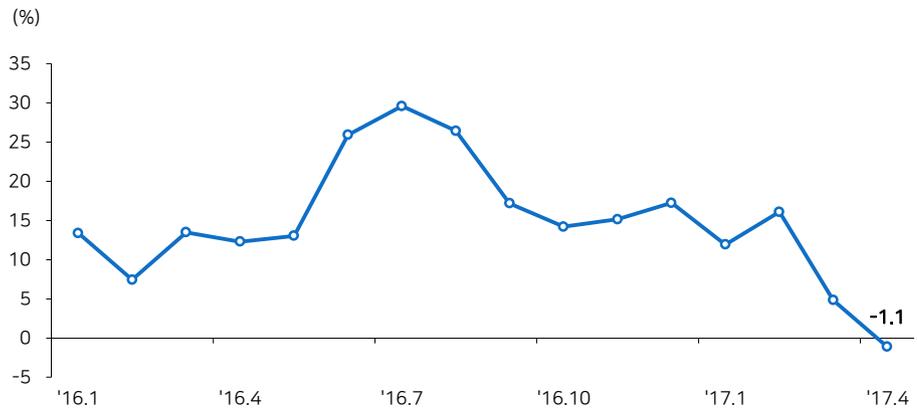
#### 화장품 내수 부진은 복합적 요인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  
면세점에서 화장품 전 채널로  
확대

4월 국내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1.1%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화장품 기업의 2분기 실적은 국내를 중심으로 크게 부진할 전망이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 (3월 -40% YoY, 4월 -66.6% YoY)하면서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이 심화되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면세점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화장품 소비는 지난 28.9%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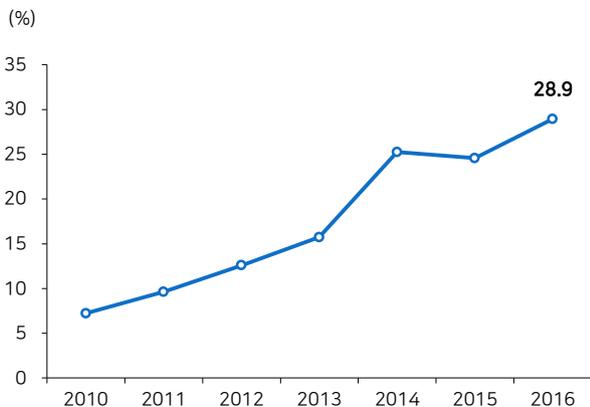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가 화장을 중심으로 구매했던 면세점 채널뿐만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의 경우 판촉 행사의 메리트가 높은 브랜드샵 채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브랜드샵의 경우 평균적으로 명동 상권이 전체 매출의 10~15%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되며 명동 상권 매출의 50%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구매였기 때문에 브랜드샵 또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림1 월별 화장품 소매판매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2 전체 화장품 시장 내 관광객 소비 비중 추정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추정

그림3 중국인 입국자 쇼핑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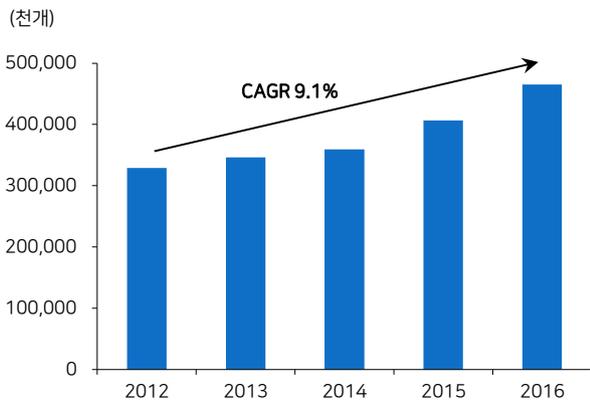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추정

국내 화장품 시장, 물량 중심의 성장 한계 봉착, 중저가 중심으로 가격할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국내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6년 4.7%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평균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구매량과 구매빈도 증가에 따른 성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물량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가격 할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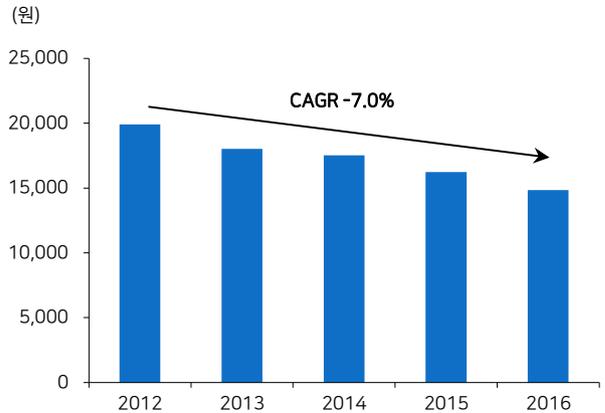
고가 화장품 채널 (2016년 기준 평균가격 54,739원)인 백화점과 방판의 경우 구매액은 정체하고 있지만 평균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원브랜드샵, H&B스토어, 홈쇼핑 등 중저가 화장품 채널 (2016년 기준 평균가격 9,410원)에서는 2014년 이후 평균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림4 국내 화장품 시장 연간 구매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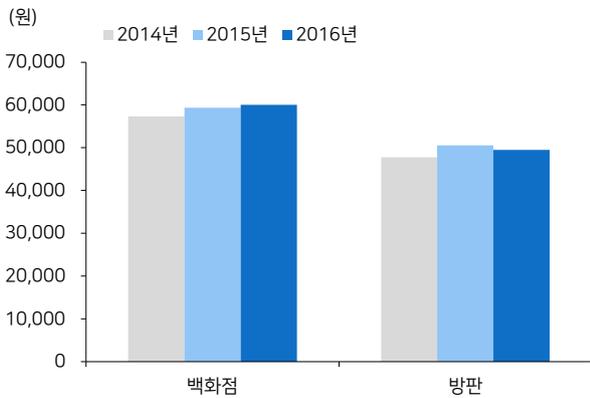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국내 화장품 시장 평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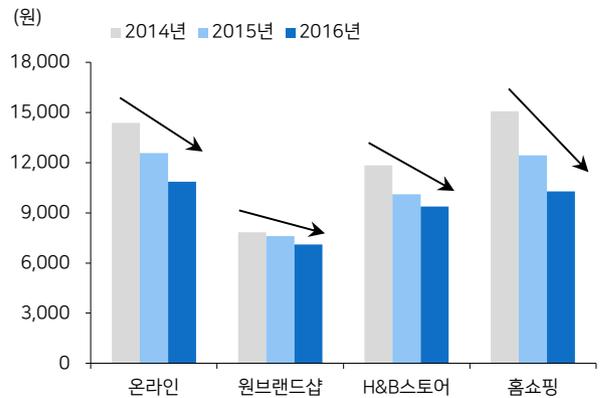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고가 화장품 채널별 평균가격 추이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저가 화장품 채널별 평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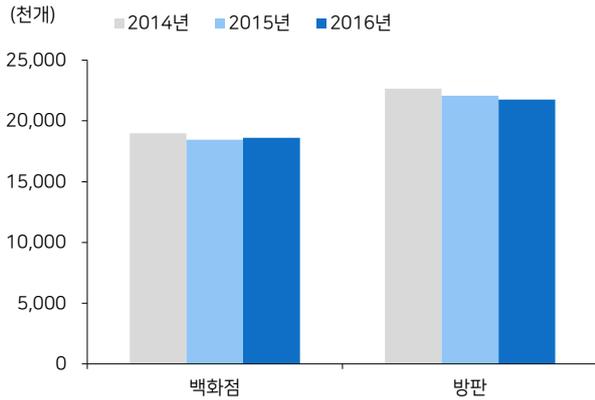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ODM 회사들의 공격적인 Capa 증설, 적극적인 수출 공략 실패 시 수익성 부담 예상

물론 화장품 업체들의 가격인하는 고객의 트래픽을 유도하여 구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저가 화장품 채널을 중심으로 화장품 구매량은 대폭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온라인, 원브랜드샵, H&B스토어, 홈쇼핑의 전체 화장품 구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33.1%, 11.6%, 78.7%, 19.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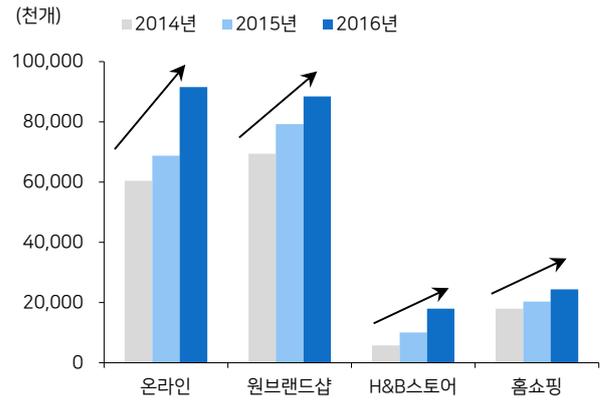
이러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화장품 OEM/ODM 업체들에게 생산을 위탁한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 주요 화장품 OEM/ODM 업체들은 공격적인 Capa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국내 화장품 시장의 물량적인 성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이들의 국내법인 Capa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 공략에 실패할 경우 화장품 OEM/ODM 업체들 또한 수익성 부담이 예상된다.

그림8 고가 화장품 채널별 구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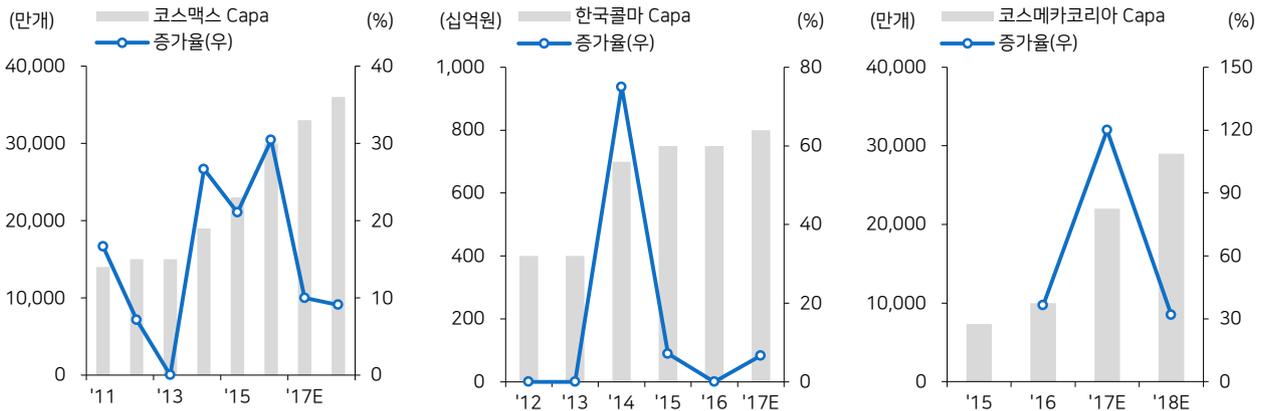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중저가 화장품 채널별 구매량 추이



자료: 칸타월드패널 (국내 여성 소비자 기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국내 화장품 Capa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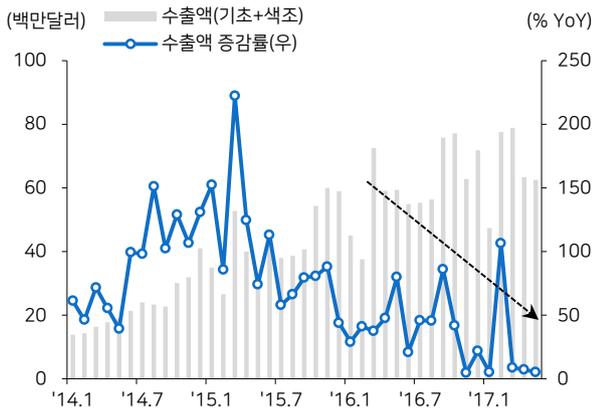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5월 화장품 수출 성장률 회복,  
국내 실적 턴어라운드 여부가  
업종 주가 판가름할 전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하여 3월 5.3%, 4월 -1.1% 대비 회복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수출액에서 61.9%를 차지하는 중국과 홍콩이 여전히 각각 5.3%, 8.2%로 부진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1.3%, 46.5%씩 크게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이 5월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6%, 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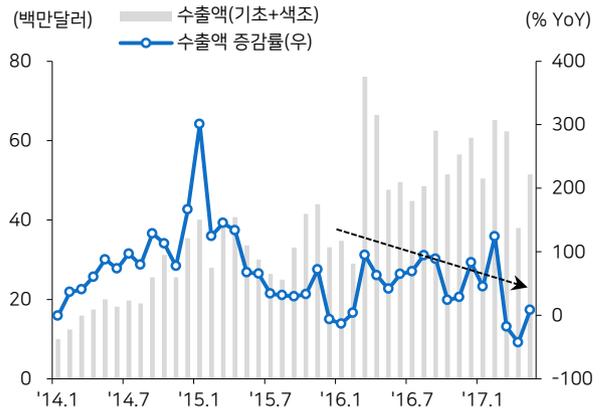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화장품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향 수출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중국 이외 미국, 일본 등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결국 화장품 업종의 주가 턴어라운드 여부는 중국 인바운드를 포함한 국내 실적이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며 현 시점에서 국내 회복 시기는 3분기 이후로 예상한다.**

그림11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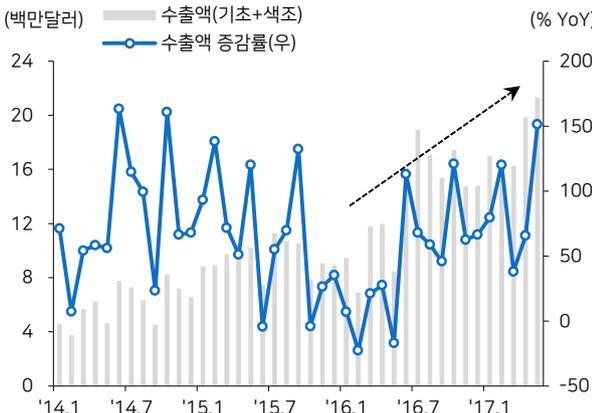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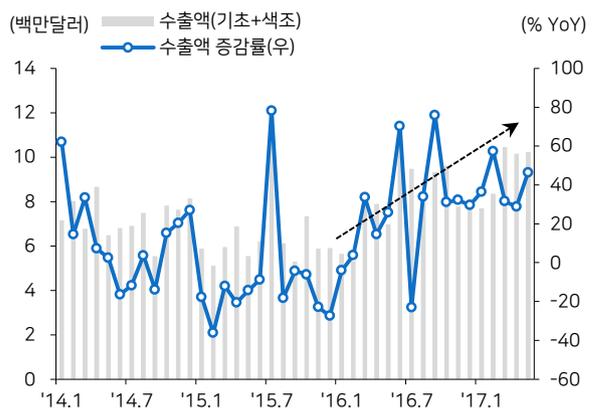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화장품 일본향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2. 전주 동향

### ☞ 유통

6월 둘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크게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지난달 소비심리지수의 강한 반등과 함께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유통업종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익실현으로 판단됨. 롯데쇼핑은 지주사 전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선방하였으며 롯데하이마트와 신세계 또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대적인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음. 호텔신라가 5월 면세점협회 매출의 양호한 성장 (+7.4%)에도 수익성 하락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하였으며 BGF리테일이 지주사 전환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이어짐

### ☞ 화장품 (생활소비재)

6월 둘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전반적인 시장 부진과 함께 특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이 높은 코스맥스, 아모레G 등의 주가 하락폭 크게 나타남. 면세점협회가 발표한 5월 면세점 매출은 7.4% 증가했지만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 매출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만큼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됨. 5월 화장품 전체 수출액은 18.3% 증가, 중국 (5.3%)과 홍콩 (8.2%) 부진에도 미국 (151.3%)과 일본 (46.5%) 성과가 두드러짐. 따라서 최근 일본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와 LG생활건강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였음

## 3. 금주 전망

### ☞ 유통: 5월까지 가전 제외 소비 부진, 6월 회복 여부 관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상단 수준에 진입한 이후 주가 조정이 나타났음. 향후 1) 5월 이후 실질적인 소비 회복 여부와 2) 지주사 전환에 따른 분할, 합병 이슈가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됨. 지난 2011년~2014년 소비 하강기에도 신세계 그룹의 인적분할과 함께 신세계인터내셔널, 롯데하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신규 유통업체들의 상장으로 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 정책으로 3분기부터 외형 성장률이 다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높은 기저로 점차 둔화될 전망. 자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태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 ☞ 화장품 (생활소비재): 기다림이 필요하다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크게 부진할 전망. 우선 1) 최근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 업체들이 매출액 성장률이 차별화되고 있음. 이는 국내 면세점 매출이 중국인 관광객이 아닌 타이공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차익거래가 가능한 고가 외산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임. 또한 2) 국내 중저가 화장품 시장은 물량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가격할인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이 예상됨. 내수 부진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이외 미국, 일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판단임. 중국 관련 실적 또한 중국 인바운드 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게 될 전망. Top-pick으로 LG생활건강을 유지함

##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 유통

#### 관심종목

##### 롯데하이마트 (071840):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와 에어컨, 건조기 등 백색가전의 판매 증가 예상. 고마진 생활가전과 PB, 해외소싱 상품 등의 비중 확대로 매출총이익률 상승 등 효율성 개선, 온라인 및 서비스 상품 강화 또한 긍정적

##### BGF리테일 (027410):

점포수 급증과 전자담배 출시로 2017년 편의점의 양적인 성장 두드러질 전망. 상품믹스 개선과 함께 순수가맹 중심으로 고정비성 비용 부담이 적어 안정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됨

#### 종목 코멘트 (탐방)

##### 이마트 (139480)

- 별도법인: 1) 할인점 기준점성장률 5월 누계 0.2~0.3%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 6월 개선 여부 관건 2) 온라인몰과 트레이더스 25% 이상의 고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두드러질 전망
- 연결자회사: 1) 슈퍼 부문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간 흑자 전환 예상 2) 조선호텔 중국 사드보복 조치로 매출 감소 예상되나 김해점 철수 효과로 적자폭 개선 추세 이어질 전망 3) 위드미 적극적인 투자로 적자폭 확대 불가피 예상 4) 중국법인 6개 점포 철수 진행 중이며 폐점 시 점당 10~20억원 영업손실, 점당 50~100억원의 영업외손실 추산됨
- 순차입금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 진행. 작년 영업현금흐름 8천억원, 신규 투자 9천억원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

### ☞ 화장품 (생활소비재)

#### 관심종목

##### LG생활건강 (051900)

신정부 출범으로 중국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단계 진입. 2분기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화장품 면세 채널의 실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음료 성수기 진입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전망

#### 종목 코멘트 (탐방)

##### CJ오쇼핑 (035760)

- 2분기 현황: 1) 4월 부진했으나 5월 건조기, 청정기, 에어컨, 건강식품 등의 판매 호조로 크게 회복되면서 1분기 개선 추세를 이어갈 전망 2) 패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전제품, 렌탈 등의 성장으로 취급고 대비 매출총이익률은 소폭 하락하겠지만 절대 영업이익의 증가에는 긍정적일 전망 3) 2017년 연간 송출수수료는 전년대비 4% 증가가 예상되며 2분기 80~1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됨
- 해외법인 손실폭 확대는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 중국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흡소포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와 일본의 영업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추산됨. 다만 작년부터 손실을 상각 형태로 선반영하고 있어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재무적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5. 주요 뉴스

#### ☞ 유통

**아마존, '유기농 체인' 홀푸드 137억달러에 인수:** 유기농 식품 슈퍼마켓 세계 1위...아마존 창사 최대규모 M&A, 오프라인 식품시장으로 영토 확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간 시너지를 내는 것은 물론 취약했던 식품 유통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 이번 인수 거래로 미국 최대 슈퍼체인인 월마트와의 유통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한국경제, 6/17)

**자영업, 최저임금 인상 못지켜도 처벌 2년 유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근로감독권 발동이 어려운 곳은 2년정도는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일정 매출이 안 돼 근로감독권 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처벌을) 늦출 수밖에 없으며 4조원의 복지카드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경감, 고용보험 확대 정책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서울경제, 6/16)

**8월부터 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年80만원 부담줄어:**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 이로 인해 연매출 2억~5억원의 소상공인 45만5000여 명이 연간 약 8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대상 범위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매출액 2억~3억원 구간 이하 혜택을 늘렸음 (매일경제, 6/15)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사업 이마트로 일원화:**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사업주체를 이마트로 일원화. (주)신세계와 (주)이마트는 1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식 양도·양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 (주)신세계프라퍼티 지분은 (주)이마트가 90%, (주)신세계가 10%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이마트가 (주)신세계의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를 모두 양수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됨. 양수금액은 약 978억원이며, 거래일은 이달 29일. 이마트는 복합쇼핑몰 단독경영을 통한 사업주도 및 의사결정 효율화 차원에서 주식을 양수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6/13)

**면세점 매출 절벽, 최악 위기 벗어나나:** 15일 관세청과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23개를 포함한 국내 49개 면세점의 지난달 매출액은 1조538억원을 기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다변화와 지난달 연휴기간 내국인 관광객 증가가 매출 '선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 그러나 여전히 '금한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면세점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낙관은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 (매일경제, 6/15)

#### ☞ 화장품 (생활소비재)

**중국, 또 한국산화장품에 무더기 수입불허...사드보복?:**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2017년 4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61개가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불합격판정 총 466건 가운데 화장품이 24건인데 이중 한국산 화장품이 19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질검총국이 아모레퍼시픽 제품 3개 품목에 대해 불합격 조치한 것은 최종 확인했다"며, "어떤 요인에 의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인지 현재 중국법인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함. 화장품 로드숍 더샵의 경우 총 5가지 제품이 위생허가증 제출 불가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 (리브즈뷰티, 6/15)

**에이블씨엔씨, 최대주주 리프앤바인 외 1명으로 변경:** 에이블씨엔씨가 최대주주를 서영필에서 리프앤바인 외 1명으로 변경했다고 12일 공시.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서영필 대표가 주식회사 비너스원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고, 비너스원은 이 주식을 주식회사 리프앤바인(지분율 100%)에 양도한 데 따른 것. 에이블씨엔씨의 최대주주는 리프앤바인 외 1명(57.25%)으로 지분율은 트리프앤바인 53.48% △서영필 3.77% (머니투데이, 6/12)

**롯데마트 일부매장에 中, 4차 영업정지 통보:** 1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 2~3개 매장에 대해 4차 영업정지 통보. 3월 초부터 매달 갱신하는 조치로 이번 기한은 다음 달 초까지이며 나머지 70여 개 중국 롯데마트 매장은 당국의 통보도 없이 무한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알려짐. 롯데마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매장 총 99곳 중 74곳이 영업정지, 13곳이 자율 휴업 중. 롯데 측은 중국당국에 영업 정지 해제를 위한 면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중국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서울경제, 6/13)

**롯데면세점, 태국 방콕에 점포 오픈...“동남아 시장 확대”:** 롯데면세점은 16일 태국 방콕 변화가인 알씨에이(RCA) 거리에 위치한 쇼디씨(SHOW DC)를 내에 태국시내점을 오픈했다고 밝힘. 쇼디씨를 2~3층에 9,354㎡ 규모로 운영되는 방콕시내점은 3층 타이존(THAI ZONE) 50여 브랜드를 시작으로 구역별로 순차적 오픈하며 올 하반기에 그랜드 오픈할 계획. 태국 토산품을 비롯해 화장품, 패션, 전자, 주류, 담배 등 전 품목 약 300여 브랜드가 들어설 예정 (서울경제, 6/16)

**홈쇼핑 유행상반기 '효자 상품'은 패션뷰티...HMR도 가세:** GS삼·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판매한 TV홈쇼핑 상품 주문수량 정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인기상품 명단을 12일 발표. GS삼의 경우 뷰티 제품이 강세를 보였고, CJ오쇼핑에서는 홈쇼핑 신형 뷰티강자로 자리한 A.H.C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림. 롯데홈쇼핑은 단독 패션 브랜드 상품이 대거 순위권에 올랐으며 NS홈쇼핑 역시 패션과 뷰티, 주방 제품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 (매일경제, 6/12)

**출근길 세탁물 맡기고 퇴근때 편의점서 찾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세탁소 네트워크 O2O업체인 리화이트와 손잡고 지역 세탁소와 상생할 수 있는 세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힘. 리화이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탁물을 접수하면서 가까운 GS25를 지정 한 뒤 해당 GS25 점포에 세탁물을 맡기면 리화이트에 가입된 가장 가까운 세탁소로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 GS25는 경기도 파주 지역 2개 점포에서 테스트 운영을 한 뒤 올해 말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를 200개로 늘릴 계획 (매일경제, 6/15)

**11번가, 편의점CU와 '무인택배 서비스' 나선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는 BGF리테일의 편의점 CU와 함께 무인 택배 서비스인 '11Pick(십일픽) 락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11번가는 최근 CU 서울대파인점에 첫 전자 락커(Locker)를 설치,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100곳의 CU편의점에서 무인택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매일경제, 6/15)

**브랜드숍 vs H&B숍 '판촉대전', 프로모션·이벤트로 세몰이...시장과열 우려 목소리 ↑:** 여름 비수기를 앞두고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판촉전에 돌입. 특히 화장품 브랜드숍간의 경쟁 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며 시판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H&B숍과의 경쟁을 위한 대대적인 판촉전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악영향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장업신문, 6/16)

**中 기다리다 지쳐..日로 가는 화장품:** 사드 보복 이후 중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하며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일본 시장은 화장품 관련 시장이 크게 발달해 공략하기 어렵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크고 틈새시장이 많아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손꼽힘. 최근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며 '안티 에이징'과 '혼뷰티(혼자+뷰티)' 시장이 급성장. 일본의 마스크팩 시장이 급성장하며 중국에 마스크팩 붐을 일으켰던 국내 마스크팩 업체들의 일본 공략도 줄을 잇고 있음. 일본 마스크팩 시장은 지난해 기준 한화 약 5000억원 규모이며 연평균 약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6/15)

### 6.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310,500	9,778	25.8	21.6	0.6	0.5	2.3	2.7
	현대백화점	A069960	112,500	2,633	8.6	8.5	0.6	0.6	8.0	7.5
	신세계	A004170	241,500	2,378	12.9	11.3	0.7	0.7	5.5	6.0
	CJ오쇼핑	A035760	200,000	1,243	11.3	10.1	1.5	1.4	15.1	14.7
	GS홈쇼핑	A028150	232,000	1,523	13.1	12.2	1.3	1.2	11.3	11.3
	현대홈쇼핑	A057050	131,000	1,572	11.8	11.1	1.0	0.9	8.8	8.7
	엔에스쇼핑	A138250	17,400	586	11.1	10.3	1.3	1.2	14.2	13.5
	이마트	A139480	231,000	6,439	14.9	13.1	0.8	0.8	5.5	5.9
	GS리테일	A007070	54,000	4,158	19.2	15.0	1.9	1.7	11.8	14.7
	BGF리테일	A027410	116,000	5,748	25.9	21.9	5.2	4.4	21.9	21.8
	롯데하이마트	A071840	69,100	1,631	11.8	10.9	0.8	0.8	7.1	7.2
	호텔신라	A008770	56,200	2,206	63.6	25.7	3.1	2.8	5.9	12.5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319,000	18,648	35.7	29.0	5.0	4.4	14.9	16.4
	아모레G	A002790	142,500	11,750	37.6	30.7	3.8	3.4	11.3	12.3
	LG생활건강	A051900	982,000	15,337	27.0	24.3	5.4	4.5	23.0	21.3
	코스맥스	A192820	115,000	1,156	33.0	20.3	4.9	4.0	15.8	22.4
	한국콜마	A161890	77,800	1,642	25.0	20.7	5.0	4.1	21.9	21.9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70,000	374	22.8	16.7	3.1	2.6	14.2	16.7
	연우	A115960	30,800	382	20.1	15.9	1.9	1.7	11.1	11.9
	대봉엘에스	A078140	12,850	142	13.4	11.8	2.0	1.7	13.9	13.6
	SK바이오랜드	A052260	18,200	273	21.3	16.2	2.0	1.8	9.4	9.8
	클리오	A237880	39,500	669	27.9	20.2	4.7	3.9	17.7	20.8
	에이블씨엔씨	A078520	27,400	463	20.2	18.3	2.1	2.0	11.1	11.3
	토니모리	A214420	20,450	361	49.4	31.8	2.8	2.6	5.7	8.5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102,500	7,750	22.2	19.9	6.2	5.5	29.7
쿠쿠전자		A192400	154,500	1,515	18.3	15.9	2.0	1.8	14.3	14.6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20,750	428	24.6	16.1	4.3	3.3	19.9	22.7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21,250	628	18.5	17.5	4.0	3.4	24.4	20.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7.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월마트	WMT US	75	226,811	17.3	16.4	3.0	3.0	17.1	18.4
	이베이	EBAY US	34	36,756	16.9	15.4	2.2	2.0	20.1	18.7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782	38,247	22.2	19.2	1.7	1.6	8.0	8.7
	노드스트롬	JWN US	48	7,887	16.0	15.7	10.0	10.4	60.6	71.6
화장품	로레알	OR FP	191	119,653	27.3	25.7	4.1	3.8	15.2	15.2
	에스티로더	EL US	98	35,864	28.6	25.8	9.8	9.3	33.5	42.6
	시세이도	4911 JP	3,981	14,368	52.4	41.9	3.8	3.6	7.4	9.2
	상해자화	600315 CH	29	2,865	46.1	36.9	3.5	3.3	7.5	8.8
생활소비재	LVMH	MC FP	231	131,033	24.2	22.0	4.0	3.6	17.0	17.1
	나이키	NKE US	51	84,354	21.2	20.2	6.7	6.2	31.5	31.1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36,850	35,269	33.4	31.2	5.8	5.1	18.0	16.9
	조지루시	7965 JP	1,230	806	11.8	11.8	1.4	1.3	11.2	10.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8.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0.8	14.6	45.1	37.4	49.3	40.2	1.6	11.7	35.2	21.7	28.3	23.6
	현대백화점	(3.9)	4.2	22.2	(0.9)	(14.5)	3.2	(3.0)	1.3	12.3	(16.5)	(35.5)	(13.3)
	신세계	(2.6)	6.6	34.9	35.3	20.5	37.2	(1.8)	3.7	25.1	19.6	(0.6)	20.7
	CJ오쇼핑	(6.5)	0.3	6.3	23.0	8.1	22.8	(5.6)	(2.7)	(3.5)	7.4	(13.0)	6.2
	GS홈쇼핑	(5.2)	11.7	10.1	33.9	30.3	34.9	(4.3)	8.8	0.3	18.2	9.3	18.3
	현대홈쇼핑	(5.4)	2.3	20.2	20.2	(0.8)	17.5	(4.6)	(0.6)	10.3	4.5	(21.8)	0.9
	엔에스쇼핑	(3.1)	6.4	5.5	17.6	1.8	13.4	(2.2)	3.5	(4.4)	1.9	(19.3)	(3.2)
	이마트	(4.7)	1.1	11.1	19.1	33.1	26.2	(3.9)	(1.8)	1.2	3.4	12.1	9.7
	GS리테일	(4.9)	(4.1)	9.4	11.1	6.9	13.5	(4.1)	(7.0)	(0.4)	(4.5)	(14.1)	(3.1)
	BGF리테일	(8.3)	(6.5)	17.3	37.3	14.8	41.8	(7.5)	(9.4)	7.4	21.6	(6.2)	25.3
	롯데하이마트	(1.3)	11.8	39.9	51.0	44.1	63.7	(0.5)	8.9	30.0	35.4	23.1	47.2
	호텔신라	(8.0)	(3.6)	28.3	10.9	(10.8)	16.7	(7.2)	(6.5)	18.5	(4.8)	(31.8)	0.2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2.3)	(9.3)	16.4	(2.0)	(22.7)	(0.8)	(1.5)	(12.2)	6.6	(17.7)	(43.7)
아모레G		(5.0)	(6.6)	20.8	11.8	(12.6)	7.1	(4.2)	(9.5)	10.9	(3.9)	(33.6)	(9.4)
LG생활건강		1.1	0.6	19.8	13.0	(7.5)	14.6	2.0	(2.3)	9.9	(2.7)	(28.5)	(2.0)
코스맥스		(7.6)	(11.5)	(14.2)	(4.2)	(26.5)	(3.8)	(6.8)	(14.4)	(24.0)	(19.8)	(47.5)	(20.3)
한국콜마		(4.9)	(12.4)	7.0	12.6	(17.9)	18.2	(4.1)	(15.3)	(2.8)	(3.1)	(38.9)	1.7
코스메카코리아		(1.1)	4.5	12.5	22.6	N/A	25.0	(0.3)	1.6	2.7	6.9	N/A	8.5
연우		(6.4)	(9.3)	4.9	(18.6)	(33.5)	(20.1)	(5.6)	(12.2)	(4.9)	(34.3)	(54.5)	(36.7)
대봉엘에스		(3.8)	(3.4)	12.7	6.2	(4.5)	8.4	(2.9)	(6.3)	2.9	(9.5)	(25.5)	(8.1)
SK바이오랜드		(1.1)	(5.9)	13.4	3.1	(12.1)	1.4	(0.3)	(8.8)	3.6	(12.5)	(33.1)	(15.2)
클리오		(0.8)	(6.7)	0.1	18.6	N/A	29.1	0.1	(9.6)	(9.7)	3.0	N/A	12.5
에이블씨엔씨		5.2	(6.3)	29.9	39.4	(16.2)	32.4	6.0	(9.2)	20.0	23.8	(37.2)	15.8
토니모리		(2.2)	(7.7)	1.2	(13.4)	(32.2)	(10.1)	(1.3)	(10.6)	(8.6)	(29.0)	(53.2)	(26.7)
생활소비재		코웨이	(1.9)	3.4	17.0	13.1	0.5	16.1	(1.1)	0.5	7.2	(2.5)	(20.5)
	쿠쿠전자	(6.9)	8.0	21.7	14.9	(4.6)	19.8	(6.1)	5.1	11.8	(0.8)	(25.6)	3.2
	뉴트리바이오텍	(8.4)	1.5	(23.2)	(29.7)	(46.4)	(32.5)	(7.6)	(1.4)	(33.0)	(45.3)	(67.4)	(49.1)
	콜마비엔에이치	(2.3)	(5.1)	26.5	12.7	(44.0)	14.6	(1.5)	(8.0)	16.6	(2.9)	(65.0)	(2.0)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9.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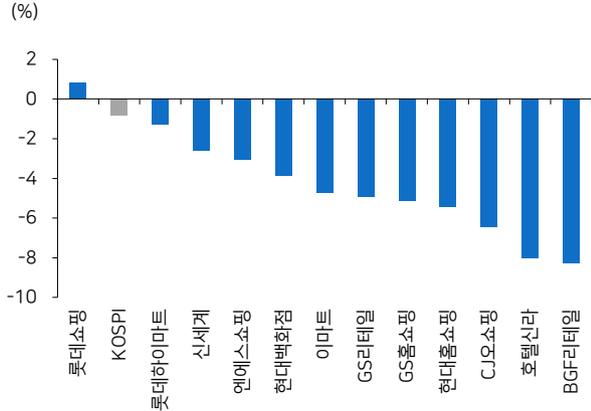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월마트	(5.3)	(3.0)	7.7	6.0	6.0	8.9	(5.3)	(5.1)	5.3	(1.5)	(11.4)	0.2
	이베이	(2.8)	0.7	0.8	14.7	42.7	14.4	(2.9)	(1.5)	(1.5)	7.1	25.3	5.7
	세븐 & 아이홀딩스	3.1	0.3	8.1	5.2	10.8	7.4	3.4	(1.5)	5.9	2.3	(17.0)	3.1
	노스트룸	0.7	16.8	8.2	(5.9)	26.7	(0.9)	0.7	14.7	5.8	(13.4)	9.3	(9.6)
화장품	로레알	0.5	2.9	7.6	13.0	18.4	10.1	1.2	4.1	3.0	3.8	(7.1)	1.9
	에스티로더	1.2	6.7	13.4	28.1	6.0	27.5	1.1	4.5	11.1	20.5	(11.4)	18.8
	시세이도	5.6	13.6	33.7	33.5	50.2	34.6	5.9	11.8	31.6	30.6	22.4	30.2
	상해자화	1.4	1.1	0.2	8.4	6.0	6.7	2.6	0.0	3.7	8.2	(2.3)	6.1
생활소비재	LVMH	1.2	0.7	14.5	28.7	67.8	27.2	1.9	1.9	9.8	19.6	42.3	18.9
	나이키	(4.4)	(1.1)	(11.6)	0.4	(4.9)	0.5	(4.5)	(3.3)	(13.9)	(7.2)	(22.3)	(8.1)
	패스트리테일링	(3.2)	(1.7)	2.2	(14.6)	33.8	(11.9)	(2.8)	(3.5)	0.1	(17.4)	5.9	(16.2)
	조지루시	(3.6)	(12.5)	(22.1)	(20.3)	(35.6)	(21.6)	(3.3)	(14.3)	(24.3)	(23.1)	(63.4)	(25.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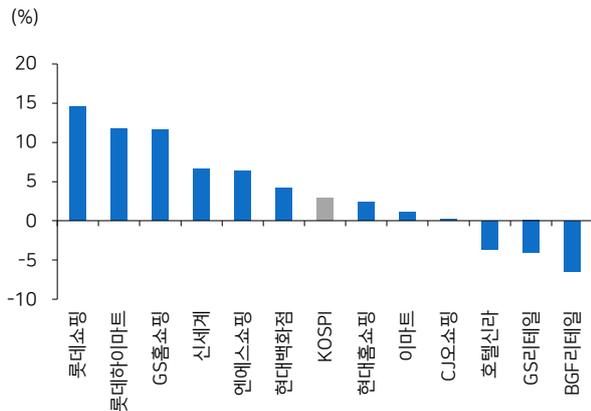
### 10. 주간/월간 수익률

#### 유통

#####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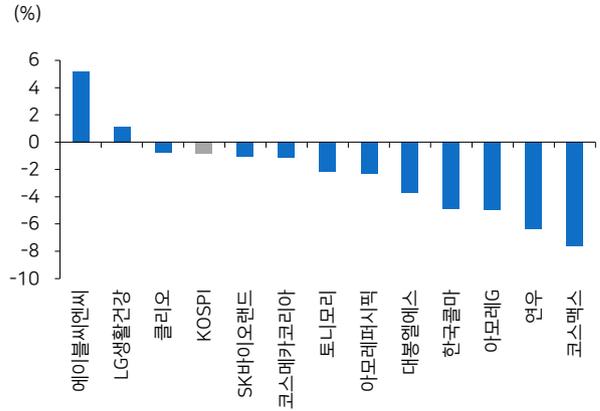
##### 월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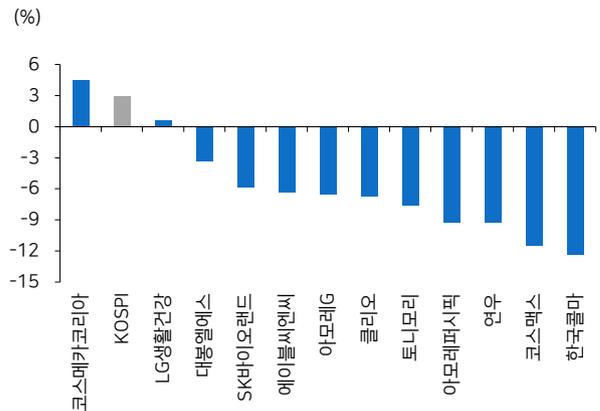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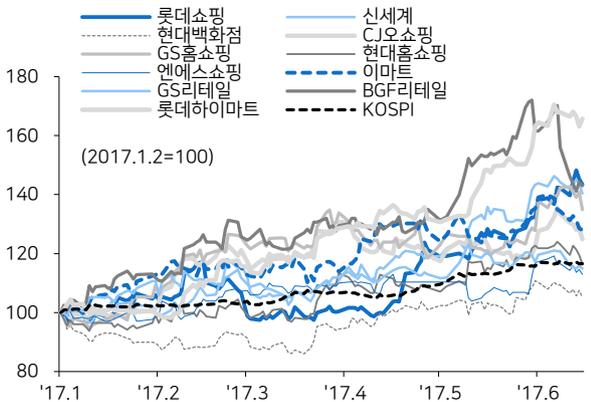
##### 월간 수익률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1. 주가 추이

####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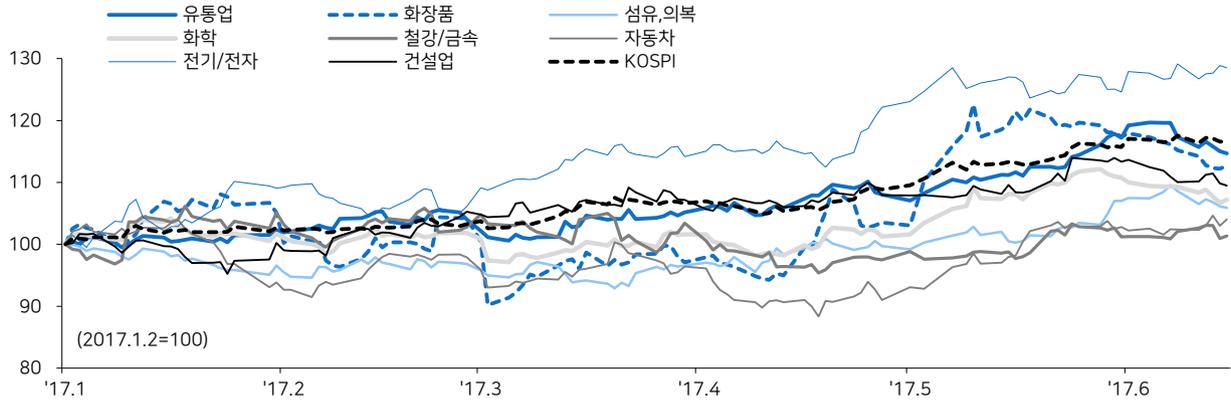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2.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3. 소비 주요지표

Monthly	'16.4	'16.5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소비지출전망 CSI	106	105	105	106	106	107	107	106	103	104	104	104	106	<b>106</b>
가계수입전망 CSI	99	98	98	100	100	100	101	98	98	98	97	98	99	<b>102</b>
소비심리지수	101.5	99.2	98.8	100.9	101.8	101.7	101.9	95.8	94.2	93.3	94.4	96.7	101.2	<b>108.0</b>
소비자물가지수(% YoY)	1.0	0.8	0.7	0.4	0.5	1.3	1.5	1.5	1.3	2.0	1.9	2.2	1.9	<b>2.0</b>
가계대출 증감률(% YoY)	13.0	12.7	12.3	12.0	12.0	11.8	11.4	11.5	10.8	10.4	10.4	10.0	9.8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5.3	14.7	14.0	13.6	13.4	13.1	12.6	12.4	11.7	11.2	11.1	10.6	10.3	
WTI (\$/B)	45.9	49.1	48.3	41.6	44.7	48.2	46.9	49.4	53.7	52.8	54.0	50.6	49.3	<b>48.3</b>
KOSPI (pt)	1,994.2	1,983.4	1,970.4	2,016.2	2,034.7	2,043.6	2,008.2	1,983.5	2,026.5	2,067.6	2,091.6	2,160.2	2,205.4	<b>2,347.4</b>
원/달러	1,139.4	1,191.9	1,151.8	1,120.2	1,114.8	1,101.1	1,143.8	1,169.0	1,205.8	1,161.3	1,130.3	1,118.5	1,137.7	<b>1,195.7</b>
원/위안	175.9	181.0	173.3	168.8	166.9	165.0	168.8	169.7	173.6	168.7	164.3	162.4	165.0	<b>164.2</b>
기준금리 (%)	1.50	1.5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b>1.25</b>
소매판매액 증감률 (% YoY)	4.4	4.6	8.8	4.1	5.3	2.1	4.2	4.2	3.6	7.1	2.7	4.4	<b>4.7</b>	
내구재	8.9	13.2	15.0	1.6	6.6	-1.6	1.9	1.7	-1.1	2.4	9.4	2.4	<b>5.8</b>	
승용차	10.0	19.8	20.2	-10.5	-5.3	-9.4	-1.8	2.3	-6.3	3.5	11.4	-0.2	<b>-0.9</b>	
가전제품	12.1	10.0	20.9	20.1	24.1	13.8	5.2	-1.6	2.5	0.1	4.7	9.0	<b>18.1</b>	
통신기기 및 컴퓨터	2.7	3.4	-0.5	2.3	9.0	-3.4	2.6	0.9	1.5	0.3	2.3	-1.0	<b>8.1</b>	
가구	0.9	1.2	1.2	0.9	8.0	11.0	12.5	10.0	11.1	5.1	16.1	7.8	<b>4.0</b>	
준내구재	4.6	2.7	14.7	8.9	3.3	3.6	3.6	1.9	1.2	0.3	0.3	-0.3	<b>1.6</b>	
의복	4.4	2.5	16.4	7.5	-0.8	1.6	3.4	1.2	1.2	-1.2	-0.5	-0.6	<b>3.2</b>	
신발 및 가방	7.5	2.5	23.3	16.9	10.2	9.0	6.4	-2.0	-0.3	4.0	4.3	-1.2	<b>-5.1</b>	
오락, 취미, 경비용품	5.1	0.1	2.9	2.3	-0.1	0.7	-1.0	2.4	-2.2	-1.3	-4.0	-1.2	<b>1.9</b>	
비내구재	0.8	1.2	2.8	3.5	5.4	3.2	5.8	6.8	7.6	12.3	0.6	7.8	<b>5.6</b>	
음식료품	5.0	3.4	3.4	4.9	7.8	3.9	8.6	7.6	9.0	17.1	-10.1	7.6	<b>4.9</b>	
의약품	2.3	5.8	6.4	4.3	5.9	7.4	4.6	6.5	4.8	0.5	2.1	1.1	<b>2.8</b>	
화장품	11.9	12.6	22.1	29.6	26.4	17.2	14.2	15.1	17.2	11.9	16.1	4.8	<b>-1.1</b>	
서적, 문구	3.5	11.3	6.5	6.5	7.2	5.9	6.4	6.4	4.1	-1.9	-0.3	-1.4	<b>-1.0</b>	
차량연료	-11.5	-10.7	-5.1	-7.5	-4.1	-6.3	-1.1	3.0	4.2	11.3	14.5	13.6	<b>9.7</b>	

주: WTI, KOSPI, 환율은 월말 증가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Quarterly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1Q17
민간소비 증감률(% YoY)	0.8	(0.1)	1.1	1.4	(0.1)	0.8	0.6	0.2	0.4
도시근로자 소득 증감률(% YoY)	1.4	2.0	0.3	(0.5)	0.9	0.9	0.6	0.2	0.7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증감률(% YoY)	0.6	(1.9)	(1.6)	(0.5)	(0.6)	0.6	0.7	(2.2)	
가계신용잔액 증감률(% YoY)	7.4	9.2	10.3	10.9	11.4	11.1	11.3	11.6	11.1
가계대출 증감률(% YoY)	7.7	9.6	10.3	11.0	11.5	11.2	11.5	11.6	11.1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1.3	8.1	7.8	6.6	6.0	10.4	10.6	11.2	10.5
판매신용 증감률(% YoY)	3.2	3.5	10.5	8.2	10.5	10.8	7.0	11.6	1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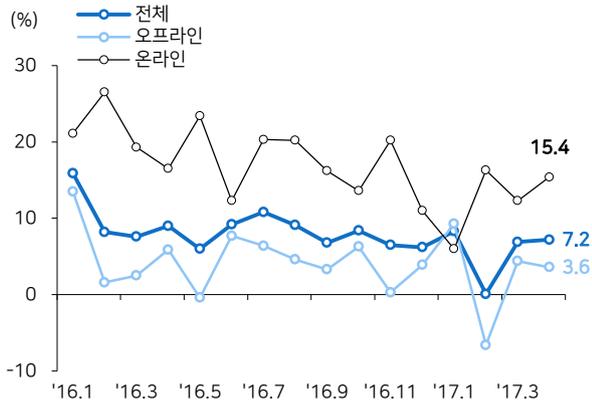
### 14. 중국 소매판매

(% YoY)	2015년		2016년										2017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b>전체소매판매</b>	11.2	11.1	10.2	10.5	10.1	10.0	10.6	10.2	10.6	10.7	10.0	10.8	10.9	9.5	10.9	10.7	10.7
일정규모이상	8.8	8.6	7.6	8.6	6.7	6.5	8.1	7.3	8.5	8.8	7.5	9.5	9.8	6.8	10.0	9.2	9.2
음식료	16.1	17.0	11.2	11.7	12.1	11.1	11.9	10.5	10.5	10.2	8.8	9.1	9.1	9.6	12.5	12.1	13.8
섬유의복	9.9	6.9	8.4	4.4	7.3	5.9	7.5	9.4	6.2	6.7	7.5	5.1	7.1	6.1	6.4	10.0	8.0
<b>화장품</b>	<b>9.1</b>	<b>5.9</b>	<b>11.4</b>	<b>9.2</b>	<b>7.6</b>	<b>5.9</b>	<b>7.9</b>	<b>9.0</b>	<b>5.8</b>	<b>7.7</b>	<b>4.0</b>	<b>8.1</b>	<b>11.0</b>	<b>10.6</b>	<b>8.7</b>	<b>7.7</b>	<b>12.9</b>
귀금속	4.9	11.1	-1.5	-9.3	5.0	-2.0	1.2	-1.1	-6.3	5.0	2.5	2.7	4.8	8.2	7.2	7.5	9.6
일용품	14.0	16.3	10.3	12.2	12.7	12.8	11.7	10.4	10.0	12.5	9.5	10.7	13.9	9.2	7.1	8.0	8.7
스포츠, 레저	23.7	28.6	16.0	16.8	19.7	12.9	19.7	5.2	5.1	7.1	9.4	24.8	13.9	19.5	12.8	8.6	11.4
서적	7.1	11.1	7.5	15.4	4.8	9.3	3.3	7.4	7.7	8.7	6.6	12.8	9.5	11.5	11.1	4.8	0.1
가전제품	18.0	13.5	7.9	6.0	9.1	0.7	12.3	11.5	7.1	8.6	7.6	14.7	9.5	5.6	12.4	10.2	13.6
중의약	15.5	12.3	12.7	19.8	9.9	14.4	10.5	7.3	13.9	12.0	11.6	11.5	9.1	9.9	12.1	12.6	14.0
사무용품	22.2	8.5	9.5	3.8	13.0	8.0	11.3	7.3	13.6	10.4	12.7	15.4	15.3	13.4	17.2	3.8	5.0
가구	14.5	16.5	16.4	15.9	17.1	15.1	13.4	13.6	11.1	8.7	11.0	8.8	9.9	11.8	13.8	13.9	13.5
통신	12.2	3.9	20.1	16.5	12.5	9.4	12.1	11.6	10.1	5.1	3.8	17.8	8.0	10.7	11.6	6.1	1.9
석유제품	-7.9	-2.6	0.5	0.3	-3.8	-4.5	-0.5	-2.1	2.7	2.9	4.7	5.7	7.1	14	11.3	12.1	9.1
건축재	16.9	20.0	14.9	15.6	17.3	16.8	14.2	15.0	16.3	14.2	12.3	11.0	10.2	12.9	17.8	13.4	11.0
자동차	9.0	8.1	5.4	12.3	5.1	8.6	9.5	9.2	13.1	13.1	8.7	13.1	14.4	-1.0	8.6	6.8	7.0
기타	6.6	3.1	11.5	4.1	5.3	5.6	2.6	1.0	0.6	-0.3	2.6	0.0	-0.7	6.9	6.0	4.7	4.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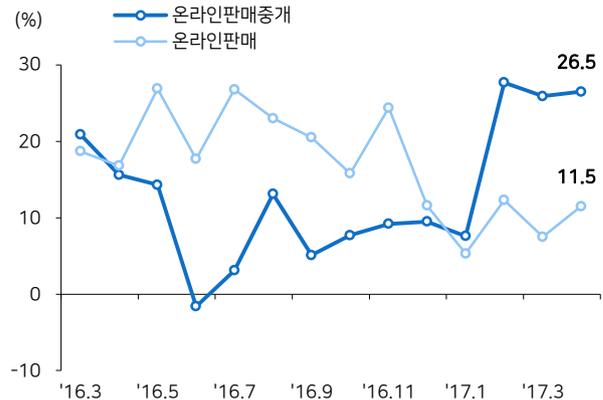
### 15. 유통업체 매출동향

전체 매출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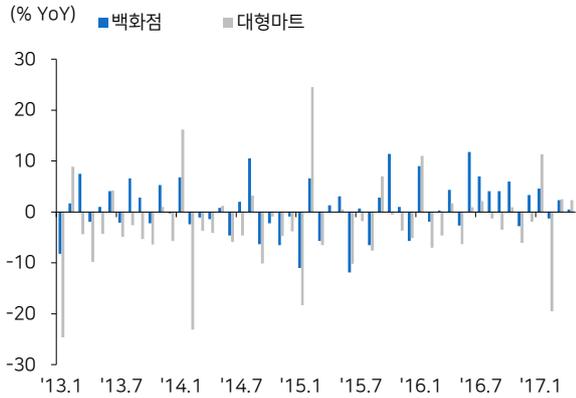
온라인 매출동향



주: 온라인판매증가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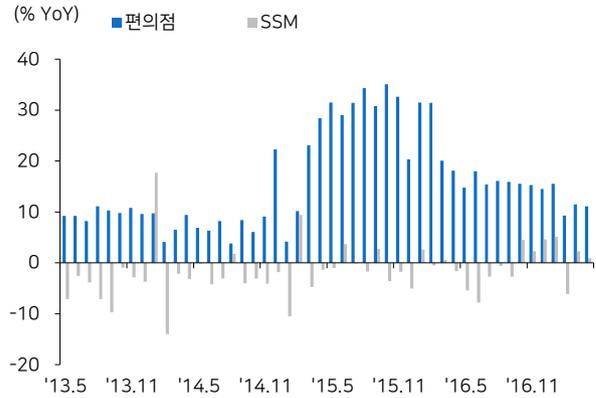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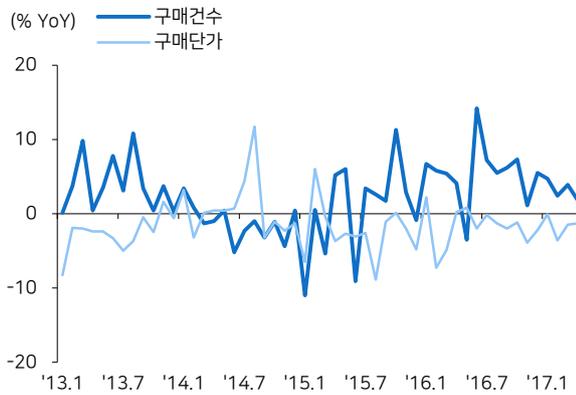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및 SSM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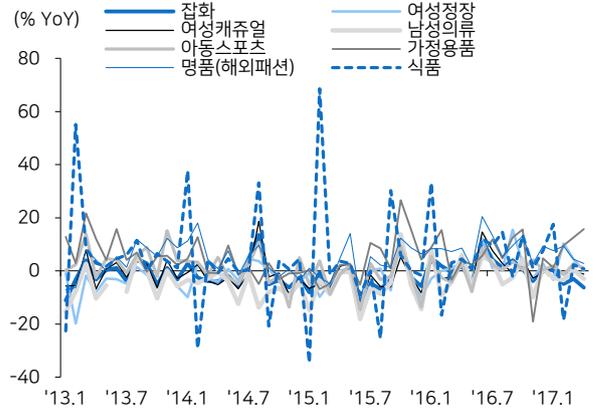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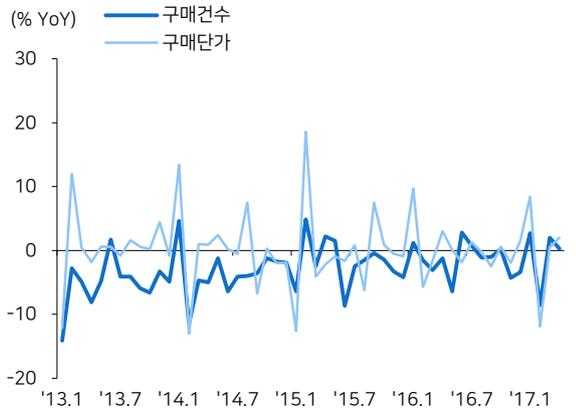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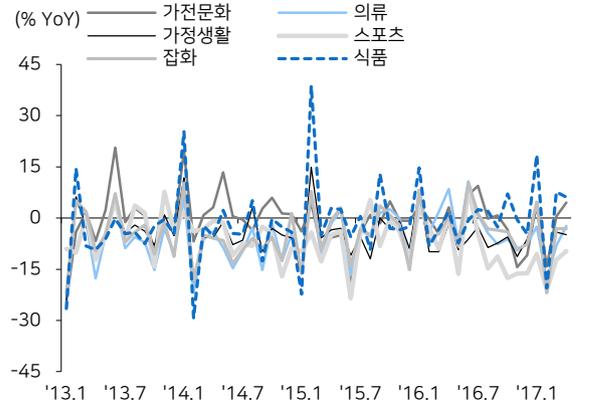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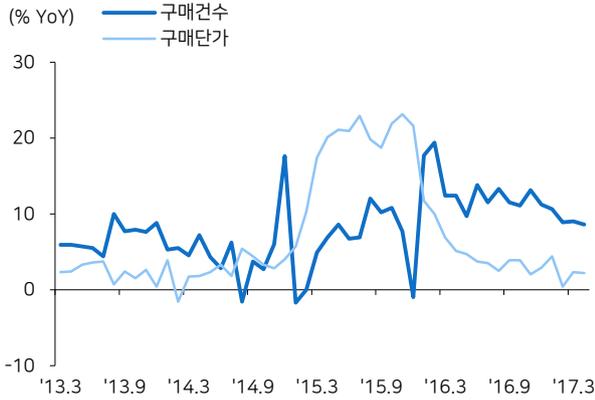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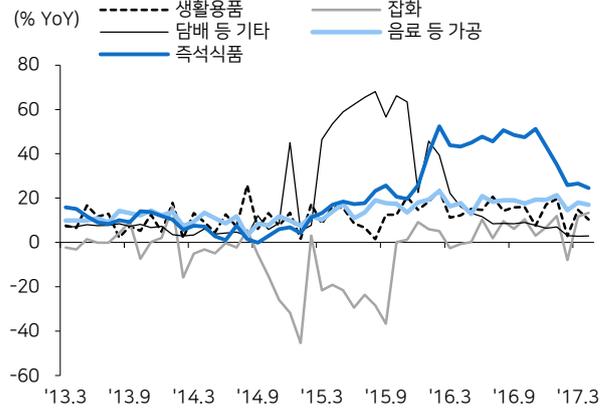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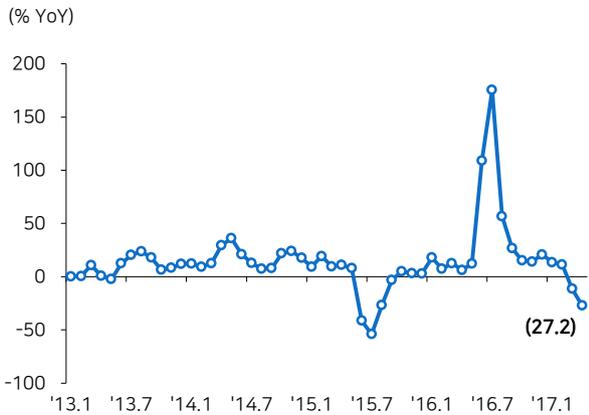
편의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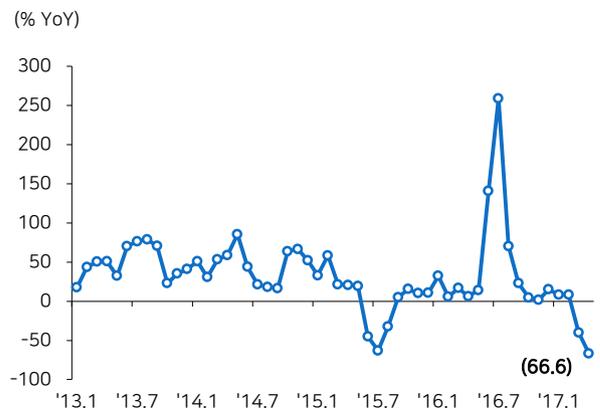
16.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4월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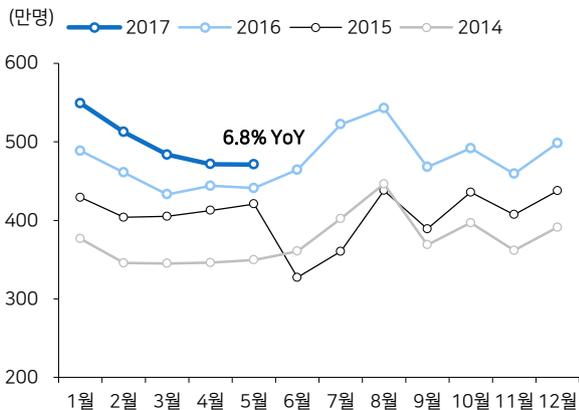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추이: 4월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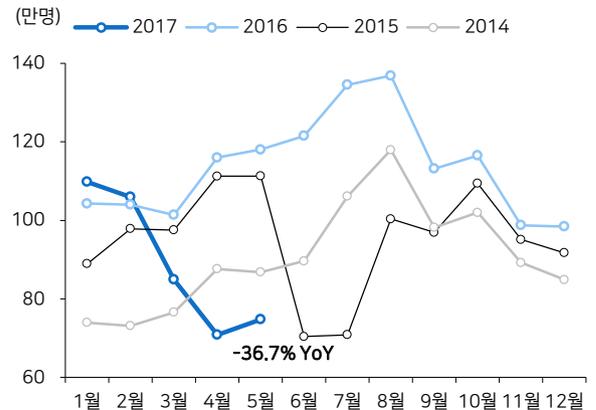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합산 여객 수송 월별 추이: 5월 +6.8%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중국 여객 수송 월별 추이: 5월 -36.7%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7. 면세점 동향

(천명, 천달러, %)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2015년 09월	1,918		198,197		1,298		428,676		3,217		626,873	
2015년 10월	2,217		237,277		1,527		536,616		3,744		773,893	
2015년 11월	2,197		235,316		1,403		511,651		3,601		746,967	
2015년 12월	2,238		239,745		1,437		525,394		3,675		765,139	
2016년 01월	2,423		236,752		1,525		517,385		3,948		754,137	
2016년 02월	2,217		211,662		1,491		490,268		3,708		701,930	
2016년 03월	2,089		212,725		1,610		609,963		3,699		822,688	
2016년 04월	2,220		241,886		1,831		633,957		4,051		875,843	
2016년 05월	2,237		245,607		1,844		625,903		4,081		871,510	
2016년 06월	2,315		245,118		1,842		624,564		4,156		869,682	
2016년 07월	2,413		267,849		1,917		637,508		4,330		905,357	
2016년 08월	2,558		285,522		1,900		682,417		4,459		967,939	
2016년 09월	2,449	27.7	277,106	39.8	1,711	31.8	666,473	55.5	4,160	29.3	943,579	50.5
2016년 10월	2,420	9.2	267,841	12.9	1,846	20.9	728,971	35.8	4,266	14.0	996,812	28.8
2016년 11월	2,312	5.2	251,214	6.8	1,519	8.3	666,382	30.2	3,832	6.4	917,596	22.8
2016년 12월	2,272	1.5	247,595	3.3	1,595	11.0	733,931	39.7	3,867	5.2	981,526	28.3
2017년 01월	2,509	3.6	260,718	10.1	1,682	10.3	708,392	36.9	4,191	6.2	969,110	28.5
2017년 02월	2,485	12.1	257,709	21.8	1,633	9.5	882,538	80.0	4,118	11.1	1,140,247	62.4
2017년 03월	2,534	21.3	267,001	25.5	1,235	-23.3	664,945	9.0	3,768	1.9	931,945	13.3
2017년 04월	2,705	21.9	299,059	23.6	998	-45.5	590,151	-6.9	3,704	-8.6	889,210	1.5
<b>2017년 05월</b>	<b>2,579</b>	<b>15.3</b>	<b>280,167</b>	<b>14.1</b>	<b>1,024</b>	<b>-44.5</b>	<b>655,899</b>	<b>4.8</b>	<b>3,603</b>	<b>-11.7</b>	<b>936,066</b>	<b>7.4</b>
2009	12,853		1,441,700		8,410		1,592,700		21,263		3,034,400	
2010	15,255	18.7	2,167,500	50.3	8,178	-2.8	1,749,700	9.9	23,433	10.2	3,917,200	29.1
2011	16,427	7.7	2,416,800	11.5	9,872	20.7	2,445,900	39.8	26,299	12.2	4,862,700	24.1
2012	16,834	2.5	2,367,800	-2.0	12,002	21.6	3,240,100	32.5	28,836	9.6	5,607,900	15.3
2013	17,146	1.9	2,342,900	-1.1	12,437	3.6	3,897,600	20.3	29,583	2.6	6,240,500	11.3
2014	18,557	8.2	2,451,800	4.6	15,766	26.8	5,451,400	39.9	34,323	16.0	7,903,200	26.6
2015	24,587	32.5	2,725,700	11.2	16,081	2.0	5,416,900	-0.6	40,668	18.5	8,142,600	3.0
2016	27,925	13.6	2,990,877	9.7	20,632	28.3	7,617,723	40.6	48,556	19.4	10,608,600	30.3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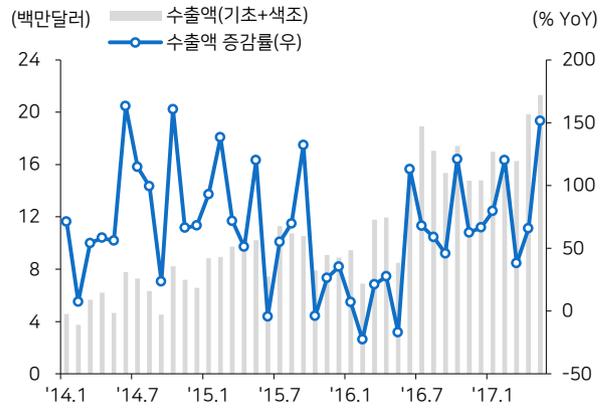
### 18. 화장품 수출 및 현황

화장품 전체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18.3%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151.3%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5.3%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가율 -5월 8.2%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b>산업</b>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2.5%
중립	7.5%
매도	0.0%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